

재일코리안⁽¹⁾의 직업선택-재일코리안의 가족·친족단위의 생애사조사-

Yamamoto Kaori,
Aichi University

1. 머리말

재일 코리안 사회에는 “의사나 변호사 또는 자영업”이라고 하는 직업 모델이 오랜 동안 전해져 내려왔다. 이것은 일본 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해 온 재일 코리안에 대한 민족 차별로 인해서, 재일 코리안이 일본의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사실로부터 형성된 담론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을 취득하거나(=“의사나 변호사”)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업을 함으로써(=“자영”), 차별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던 것이다. 어느 길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재일 코리안들은 자포자기 하면서 “그럼, 나머지는 야쿠자인가” 라고 덧붙이기도 한다.

이 직업 모델은 재일 코리안들이 진로 선택을 할 때 (때로는 “신화”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포함해서), 큰 영향력을 가져 왔다. 이하에 인용하는 것은 1952년 생인 재일 코리안 2세의 남성이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 보면서 하는 이야기이다.

친구 관계에서 차별을 느낀 적은 없지만, 그렇지만 공부해서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러한 막다른 곳 같은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 일본인이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 재일은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요. 계속 그러한 차별감을 갖고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너희들 조선인은 공부해도 의사 밖에 되지 못한다’ 고 들어 왔어요. 그러한 시대에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공부를 해도 쓸데 없는 것이라고 여겨왔어요. 아버지는 (자신이 경영하고 있던 작은 공장을) 잇는 길 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것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막 도망치고 싶기도 했어요. 도망치면 의사가 될 수 밖에 없었고, 아무튼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

가업을 돕든지, 어느 한쪽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업을 잇는 것은 싫었지만, 그것(의학부 수험)에 실패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너, 대학 가지 말고 일해라’라고 하시니 가업을 돕는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어요. (1993년 11월 인터뷰)

그는 결국 대학 입시를 다시 치러서 공학부에 진학했다. 그리고 졸업한 후에는 가업을 이었다. 인터뷰 당시 사업은 순조로웠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느꼈던 폐색감은 여전해서, 지금의 길이 결코 그가 바라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인터뷰 자체의 분위기가 무거워졌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분위기가 생생하다. 그의 인생이 재일 코리안 사회에서 전해져 온 직업 모델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도 그의 이야기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재일 코리안의 친족도 이 직업 모델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마치 이 직업 모델을 체현한 것처럼 2세 세대는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갔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지만 자영업의 불안정함이 가슴에 사무쳤기 때문에인지, 자식에 해당하는 3세 세대에게는 “차별이 없는 직업” 또는 “안정된 직업”인 의사가 될 것을 강하게 바랬고, 대학 진학이나 학부 선택에서 관련된 학과를 선택하도록 지시해 온 것이 이들의 생애사에서 보인다.

그리고 그 자녀들 역시 고민은 하지만, 이러한 부모의 가치관을 계승해서 “안정된 직업”을 얻는 것이 진로 선택 시 제일의 목표였다는 사실이 생애사로부터 밝혀진다. “고학력=전문직으로 살아 남는다”는 전략은 결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일 코리안의 삶의 방식의 중 하나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한 요인을 “세대간 생애사”(2)를 통해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친족의 직업 이동에서 가족·친족의 결합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즉, 상승 이동이 가족·친족으로부터의 분리나 유대를 약화시키는지, 아니면 결합을 유지/강화하는지 “세대간 생애사”속에서 독해하는 것도 본고의 목적이다.

2. 재일 코리안의 교육 달성·직업 지위 달성

구체적인 데이터를 다루기 전에 재일 코리안이 일본 사회에서 갖는 계층적 지위에 관해서 개관 해 보기로 하자.

일본에서의 계층 연구를 이끌어 온 것은 1955년부터 10년마다 행해져 온 SSM (Social Stratification and Social Mobility 사회 계층과 사회 이동) 조사이다. 그 중심적인 쟁점이 되어 온 것은 세대간 이동의 분석, 지위 달성 과정의 분석이며, 출신 계층이 개인의 이동에게 주는 유/불리를 해명하는 것에 있었다. 다만ethnic minority의 교육 달성, 직업 지위 달성에 관한 테마는 SSM 조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그 주된 이유는 일본의 “외국인” 인구비율이 다른 선진 산업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다 (金・稲月, 2000 : 182). 또 외국인 등록 원표 등을 사용한 샘플링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연구자의 조사 목적에 사용하는 데는 거의 불가능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이 있는 가운데 金明秀와 稲月正은1995년 SSM 조사의 남성 데이터와 “재일 한국인의 사회 성층과 사회의식 전국 조사”(3) (이하 “재일 조사”)의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일본에서의 대표적인 정주 외국인 그룹인 재일 한국인(조선국적, 일본국적을 포함하지 않고, 여성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성인・한국국적남성에게 한정)의 일본 사회에서의 계층적인 지위를 분석하고 있다.

金明秀와 稲月正의 분석에 의하면 교육 연수, 직업(현직) 위신, 개인 연수입의 평균치를 일본인과 재일 한국인과 비교할 때 민족 사이의 격차는 거의 볼 수 없거나, 재일 한국인이 오히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직업종을 비교하면 재일 한국인의 사무분야종사자 비율은 일본인의 절반 밖에 안 되는 데에 비해서 자영업의 비율은 일본인의 배 이상이라고 한다. 金明秀와 稲月正은 이 결과를 토대로, 재일 한국인은 취직에서의 차별로 인해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대체로 “오락업을 전형으로 하는 주변 섹터나 동포 민족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및 고도의 지식이나 자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 (金・稲月, 2000 : 190)등, 주변적 위치에 있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재일 한국인은 첫 직업과 현직 모두에서, 교육 수준의 영향이 일본인에 비해 적다는 결과가 나왔다 (金・稲月, 2000 : 192). 이 결과는 재일 한국인이 교육 달성을 통한 지위 달성 프로세스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京都대(4)를 졸업해도 파칭코가게나 불고기가게 밖에 경영할 수 없다”고 재일 코리안들이 취직난을 평할 때가 있지만 결코 과장이 아니다.

그리고 재일 한국인은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족・친족”, “가족・친족의 친지(서로 아는 사람)” 그리고

“친구·지인(知人)” (8할 이상이 한국·조선인) 과 같은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자원으로 동원해서 취업에 이용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金·稲月, 2000 : 193).

金明秀와 稲月正의 조사는, 질문지를 이용한 양적 조사이지만, 이 조사에 의해 밝혀진 재일 한국인의 사회 이동이 보여주는 특징을 생애사의 데이터=질적 데이터로부터 읽어냄으로써, 그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본고의 과제이다.

3. 재일 코리안의 가족·친족과 세대간 생애사 조사

본고에서 취급하는 데이터는 “민족 관계 연구회”(대표 : 大阪市립대학대학원 문학연구과 교수 谷富夫. 이하 “관계연”이라고 한다.)가 실시한 “재일 한국·조선인의 가족 친족 단위의 세대간 생애사 조사”로부터 얻은 것이다. 본조사는 재일 코리안 사회에서 가족·친족의 결합이 강한 한편 연구의 준거집단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서, 가족·친족을 단위로 한 생애사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확실한 것은 재일 코리안이 유교 정신에 근거하는 가족·친족의 강고한 결합을 보존·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그리고 일본 사회에 존재하는 민족 차별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족·친족 이외의 사회 관계가 희박하다는 점에서 재일 코리안에게 가족·친족의 네트워크 기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따라서 재일 코리안의 가족·친족에게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실시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족·친족 내에서 계승·전달·변용되는(또는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또 그 프로세스는 어떠한지를 탐색 하는 시도로서 “세대간 생애사법” 이라고 하는 방법이 고안 되었다. 세대간 생애사법을 고안해 낸 谷富夫에 의하면, 세대간 생애사법이란, “가족·친족의 구성원인 개인의 생애사”를 심층적으로 청취하는 연구 방법으로서, 개개인의 생애사를 세로·가로로 연결되는 “혈연·혼인 관계 안에 두고”, 세대를 초월하는 긴 시간의 흐름에서 보는 “민족 관계, 문화 계승, 및 직업 이동 등의 변동 과정을 추구하기 위한 라이프 코스 연구”의 하나의 방법이다(谷, 2002 : 39).

재일 코리안의 세대간 생애사를 청취함으로써 가능한 것은 세대간의 비교이다. 예를 들어 결혼관--상대는 동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인지, 일본인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세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장자일수록 동포간의 결혼을

강하게 고집하지만, 젊은 세대 일수록 일본인과의 결혼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서 실제로 일본인을 배우자로서 선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세대간에 변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세대간의 생애사를 비교함으로써 밝혀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개인이 들려 준 가족·친족의 생애사를 번갈아가며 대면시킴으로써 조부모로부터 부모, 그리고 자식에게 어떠한 생각과 삶의 방식(생활 목표나 생활 이념)이 계승/단절되고 있는지를 읽어낼 수도 있다. 즉 세대간의 관련성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민족 의식이 조부모의 세대로부터 부모의 세대를 거쳐 손자의 세대에까지 계승되어 가는 프로세스를 들 수 있다. 제사 때 할머니가 “조선사람으로서 바로 살아라” 라고 가르친 것이 그 손자의 세대에서 하나의 토대가 되어 사춘기부터 청년기까지의 독서나 민족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민족 의식을 재형성하는 프로세스가 생애사 안에 나타난다.

이러한 강점을 지닌 세대간 생애사 조사를 이용하여, 관계연이 몰두한 과제는 이하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재일 코리안 사회 그 자체를 이해했다. 다시 말하면, 재일 코리안의 민족 문화와 민족 의식의 본연의 모습을 파악한 것이다. 谷富夫의 말을 빌리면 “이문화 이해”(谷, 1996 : 14) 라고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재일 코리안 사회와 일본인 사회의 민족 관계를 파악했다. 특히 일본인과 재일 코리안은 어떠한 조건 아래에서, 결합(=공생)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생애사로부터 판단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세번째는 본고의 주된 테마로서 재일 코리안의 계층적인 위치를 이해하고 그 사회 이동의 양상을 이해했다. 그리고 관계연에서는 “가족”을 “정위가족”(定位家族)과 “생식 가족”(生殖家族) 양쪽을 모두 포함하는 집단으로 다루는 동시에, “친족”을 여러 가족이 혈연이나 인연에 근거해서 결합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뤘다.

4. 조사

4-1 : 개요

상기의 목적을 갖고 관계연에서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大阪 도시권에 사는 재일 코리안 네 친족, 합계 57명(보충 조사도 포함하면 방문 회수는 총 72회)의 생애사를 “snow ball방식”이라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순서는 생애사에 대한 자유 면담에 들어가기 전에, 연령, 국적, 가족 관계, 교육력, 직업 경력 등의 기초적인 사실을 질문해서 준비한 “페이스 시트”에 기입했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관계연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 항목” 목록을 이용하면서 대상자에게 유소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사를 순서에 따라 이야기 해주도록 부탁했다.

면담은 화자의 허가를 받아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한 후 다시 문서로 재작성 했다.—①초벌, ②클리닝, ③최종 확인--이 세 절차를 거쳐 최종 스크립트를 만들었다.

또한 연구자 자신은 고가(高家)⁽⁵⁾ 친족의 조사에 깊이 관련하여 본조사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지금도 제사에 참가하거나 친족 여러분을 만나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도 아울러 사용하기로 한다.

4-2: 세대 구분

제일 코리안의 세대 구분에 관해서는 일본에 와서 몇 대째인지를 나타내는 “일세”, “이세”, “삼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각개인이 살아 왔던 시대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없다는 결점이 있다. 예를 들어 “2세”라고 하여도 그 연령 폭이 커서 개인이 살아 왔던 시대 속에서 그 사람의 생애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본조사에는 합당한 세대 구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관계연은, “어느 시대에 십대를 지냈는가”에 따라서 세대를 네 가지로 분류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가 15세(일본의 의무 교육 종료 년)를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①“전쟁 전 이주 세대”(~1945년), ②“전후 세대”(1943년~1959년), ③“성장기 세대”(1960년~1973년), ④“정주 세대”(1973년~)로 분류했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세대 구분에 따랐다. 본고에서 취급하는 고가의 친족들을 세대별로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이하 고가의 생애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5. 생애사로부터

5-1: 고가의 프로필

고가는 전후 세대(이민의 제2 세대)에 해당하는 육남매를 중심으로 모인 친족 집단이다 (그림1참조). 고가의 최대의 특징은 성장기 세대・정주 세대(이민의 제3세대)의 대부분이 고학력을 취득해 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2 참조). 고가에서 16명이 이 세대에 해당하고 있지만 그 중 13명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졸자 중 5명이 의사(조사 당시의 의대생인 1명을 포함), 1명이 치과의였고, 그 밖에도 통역사 세무사·CPA(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해서 일본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지자체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 등이 있다. 이는 부모의 세대에 해당하는 전후 세대가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 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후 세대의 직업 이동이 가족·친족·친구와 같은 사회 관계에 의존해 온 것에 비해, 성장기·정주 세대는 학력을 직업 이동의 수단으로서 최대한으로 이용했던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는 친족이다.

재일 코리안이 “자영업이나 의사나 변호사”라는 선택사항 밖에 없다는 점(‘신화’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포함) 자체가 큰 어려움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에 도달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준거점이 되어 다른 사람의 진로 선택에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가의 경우도 강태철의 東京대학 이과Ⅲ류⁽⁶⁾ 진학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그 후 잇달아 의사 혹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가족·친족의 친밀한 상호부조가 있다. 따라서 고가의 직업 이동에 가족·친족의 결합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즉 상승 이동이 가족·친족으로부터의 분리/유대의 약화를 가져왔는지, 아니면 결합을 유지 또는 강화했는지, “세대간 생애사”를 통해 분석하기로 하자.

5-2 : 전후 세대의 생애사

<전후 세대의 자영업 지향의 형성>

고가의 전후 세대는 주로 자영업주로서 시작해서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들은 비교적 고학력이고 육남매 중에 장남 성해와 막내(성화의 남편)가 대졸, 차녀 성순, 삼녀 성매, 및 차남(은우의 아버지)이 고졸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재일 코리안이기 때문에 학력은 사회에 나올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당시의 일본 사회에는 취직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성해는 関西에 있는 유명 사립대의 법학부를 졸업했지만 젊은 무렵의 장래 전망에 대해서는 “취직이라고 해도 그 땐 일류 상사같은

것은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라고 회고하면서 우선은 어머니와 삼촌이 경영하고 있던 고무공 회사에서 일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여동생 성매도 오빠의 취직이나 자신의 취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매】 오빠는 그 때 대졸이었어도 (재일 코리안이라는 이유로) 취직할 수 없었어요. 둘째 오빠(차남)도 天王寺 상업(고등학교를 졸업) 이라고 하면 그 때 취직할 수 없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곳이었는 데도 역시 취직차별이 넘 심했어요. 학교 졸업한 후 계속 같이 있고 사이가 아주 좋은 친구와 비교해봐도 한쪽은 확실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한쪽은 근무할 만한 회사도 없는 형편... (좋은 고등학교 나와도 취직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애초에 그렇다고 단념하고 있었어요. (자신도 포함해서) 형제들은 한번은 (어머니가 경영하고 있었던 회사에) 들어가 그 후 독립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삼촌의 회사 경영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던 시기도 있어서 “나, 차별 당하고 있기에 (기업에는)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는 위기감이나 비장감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젊을 때부터 막연히 “자영업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는 있었다. 민족 장벽 때문에 매우 한정된 직업 모델 밖에 없고 그 안에서 그들의 “자영 지향”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생애사로부터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자영업의 성공>

전후 세대는 한정된 직업의 선택지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주로서 직업 생활을 개시했지만 각각 어느 정도의 성공에는 이를 수 있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농밀한 가족·친족 사이의 상호부조이며 육남매가 서로 떠 받쳐 온 가족의 역사였다.

전후, 일본 전체가 혼란에 빠져 궁핍했던 시절, 그들의 아버지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급사했다. 당시, 육남매는 아직 어렸었다. 장녀 14세를 필두로 10세, 8세, 6세, 3세, 그리고 막내는 불과 1세이었다. 자식 여섯을 데리고, 어머니 정숙은 필사적으로 일했다. 정숙은 “보따리장사”(한일을 왕래하고 물자를 옮기는 일)나 암시장에서 자금을 벌여, 친아우들과 고무공 제조 공장(후에 염화 비닐 제조 회사가 된다)을 창업했다.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자”(성매)라고 되뇌이면서 정숙은

자식들을 길러냈다. 그리고, 어머니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자식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짬을 내서는 일을 도왔다.

【성매】(학교에서)돌아오면 나, 고무공을 만들었어요. 언제나 고무공이 놓여 있었기에 거기에 셀로판을 열심히 싸서 만들었어요. 오빠도 잘 도왔어요.

【성순】언니(성옥)는 엄마 역할 했어요. (나도) 밥을 하거나 언니와 같이 종업원의 야식을 만들었어요.

【성옥】(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는) 그저 일만 하셨어요. 집일은 제가 맡구요. 집에 일은 뭐나 다 제가 했습니다. 세탁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여동생이나 남동생의 학교에도 제가 갔어요. (어머니는) 글자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대신으로 갔어요. 神戸의 남동생(성해)은 술만 마시면 “얼마나 무서운 누나였다구요”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면 옆에서 아내가 “그래도 누나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까지 갈 수 있었다고 말해요”라고 덧붙이기도 해요.

이와 같이 곤궁한 시대를 일가가 총출동해서 서로 도우면서 넘겼기에 가족의 결속이 강해졌다. 그리고 이 강한 결속이 성인이 되어 각자 직업 생활을 영위하게 된 이후에도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예를 들어 성해는 1969년, 神戸에서 선술집을 시작했다. 그전에는 플라스틱 회수업을 동생, 의동생과 함께 하고 있었으므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뛰어든 셈이다. 원래는 동생이 독립을 생각해서 한 일이었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아 성해가 대신 장사를 시작했던 것이다. 즉 어찌하다 보니 맡게 된 것이다.

神戸시의 중심부에서 비교적 가까운 상가의 모퉁이에서 가게를 시작했다. 그곳을 선택한 것은 누나(성순)의 남편이 같은 상가에서 찻집을 경영해 성공한 예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토지를 찾는 것부터 은행의 융자까지 성순의 남편이 자기일 같이 발 벗고 나서 도와 주었을 뿐만 아니라 보증인까지 해 주었다고 한다. 그 때는 제일 코리안이 일본의 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데도 차별이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기에 성순 남편의 지원이 얼마나 큰 도움이었는지 쉽게 상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삼녀 성매의 남편 박종철이 업무에서 성공한 과정에도 친족 사이의 상호부조를 엿볼 수 있다. 박종철이는 성해와 하고 있던 플라스틱

회수업을 폐업한 후 한 회사(일본인 경영)의 공장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회사가 이전하게 되어 토지를 찾고 있을 때 당시 부동산업을 하고 있던 차남에게 “알맞춤하게 공장에 딱 맞는” 용지를 소개받았던 것이다. 그 이후, 처음에는 눈에 띄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규모였던 회사를 종업원 60명, 연간매상 35억 엔 규모의 회사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박종철 자신도 전무 이사까지 승진하게 되었다.

물론 그들의 성공 뒤에는 “정말로 일 많이 했어”, “다른 사람의 세 배는 (일을) 했으니까”(박종철)라고 하는 근면함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성해도 선술집을 시작할 때까지 음식업에서 일한 경험은 전혀 없었다. 거기서 부엌칼 가는 방법부터 매입 방법까지 처음부터 프로 요리사에게 배웠다고 한다. 가게 근처에 대기업 공장이 있다는 좋은 입지 조건도 있었지만, 음식점 경영에 관해서는 완전히 아마추어인 성해 부부가 가게를 꾸리고 그것을 유지해 가는 것은 많은 고생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성해】당시는 뭐 우선 체력이 있었고. (가게를 지으면 지방 풍습으로) 야쿠자와 관련되거나 이모저모로 일이 많았지만 빚을 갚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앞섰어요. 가게는요, 당초는 여러 가지 모르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밤 새워서라도 아침8시쯤에 시장으로 구입하러 갔어요. 가게는 (오후) 2 시에 시작해서 (새벽) 1 시 넘어까지 했어요. 어쨌든 빚 많이 지고 있었으니 한 사람이라도 맥주 한 병 마시는 손님이라도 기꺼이 맞아 들고 일전이라도 매상을 늘이려고 애썼어요. (공장 근무) 시간을 몰랐으니 그저 준비만 되면 영업을 시작했어요. 아무튼 열심히 부지런히 일했어요.

【성해 아내】영업준비도 간단한 일은 아니었어요. 생선회 이외는 손님의 주문을 받고 나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했으니까요. 포테이토 샐러드는 차게 해 두고, 야채는 썰어 둘 것은 썰어두고, 오텡은 삶아두고. 그리고 파도 썰고, 가게의 청소도 하고... 남편 나무람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힘든 장사였어요.

이 이야기만으로도 자기를 잊고 열심히 가게를 꾸려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람되게도 가게는 크게 번성했다. 1995년 1월17일의 고베 대지진(阪神淡路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후 가게를 그만 두기는 했지만 가게는 끝까지 손님으로 떠들썩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개인의 노력과 가족·친족의 상호부조가 있었기에 고가의 전후 세대는 자영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자식에 대한 기대>

자영업주로서 성공했지만 고가의 전후 세대의 상당수는 자식을 후계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라지 않았다. 자식들은 높은 학력을 얻어서 의사로서 일본 사회에서 일하는 것을 바랬고, 이를 따르는 자식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재일 코리안으로서 일본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정된 직업 생활을 하려면 의사가 되는 것이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자식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쳤다.

예를 들어 강태철은 고가 친족들 중에 최초로 의학부로 진학했지만 그의 본래의 희망은 문과 대학으로의 진학이었다. 그렇지만 부친이 강하게 반대했다. 재일 코리안이니까 문과의 대학을 나와도 취직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강태철에게 의학부 진학을 권했다고 한다. 모친·성순도 당시를 회고하면서 “남편은 ‘이 애 [강태철]가 변호사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성격에 맞을 것인데’라고 생각했지만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역시 의학부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한다. 만약에 부모의 희망과는 상반대로 강태철이가 문과 학부에 진학한다면 일본국적으로의 귀화까지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집이 가난해서 고교 진학을 단념하고 일을 시작한 박박종철(성매의 남편)은 항상 자식들에게 “일본사람에게 지지 말아라”라고 말했다. 강태철이 아버지와 같이 의학부 진학을 권한 적은 없지만 의사가 된 두 자식(박경화와 박경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박경화】 평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역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당연 이 세상에서는 위에 선다고.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조선에 돌아가도 일본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외국사람이라는 것에는 틀림없어. 그러니까 일본에 살고 있는 이상 여기에 맞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키워 가지 않으면 안 돼.”

【박경철】 아버지가 중졸로서 고생했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열등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식들에게는 공부 시켜 의사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의 스테이터스가 아닙니까. 자식이 그것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역시 부모 된 몸으로서는 기쁜 일이지요.

자영업은 궤도에 올라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 왔지만 경영자로서 스스로의 능력만으로 그것을 유지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가족·친족 사이의 강한 정과 상호부조는 버팀이 되어 왔지만 “무모하게” 일하는 생활에는 고생도 많았을 것이다. 그 때문에 고가의

전후 세대는 자식들에게 자영업을 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안정적이고 사회적 위신도 높은 의사가 되는 것을 강하게 바랬던 것이다. 생애사를 이야기 할 때 의사라고 하는 직업의 사회적 역할이나 윤리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친 적도 없다. 어쨌든 의사가 되면 일본 사회에서 엄연히 존재해 온 재일 코리안에 대한 취직 차별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안정된다고 생각해 자식들이 의사가 되기를 강하게 바랬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자식들(영태·영매)의 진로에 별로 참견하지 않은 장녀 성옥이도 “(재일 코리안은) 공무원 같은 직업은 할 수 없거든요. 역시 우리 동생(의 자식의 대부분)도 의사가 될 길을 선택한 것은 큰 회사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라고 의사를 지향한 친족들의 배경에 있는 민족 장벽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런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의학부 입학이라고 하는 허들을 통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의학부 입학은 상당한 난관이며 그것을 넘기 위해서는 그만큼 준비가 필요하다. 성순, 성화, 성해는 자식들을 사립 중고등학교(7)에 입학시켰다. 그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원에 보내거나 자식이 공부하는데 따라다니거나 하면서 교육에 아주 열심이었던 모습이 보여진다.

수험뿐만 아니라 자영업주로서 다망한 나날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여왔다는 것도 강조한다.

【성해】언제나 언제나 항상 시간을 내서는 함께 목욕탕 가거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일은 그렇게 많이 했어도 대화는(다른 가정보다) 더 많은 것이 아니었을 까요?

성매·박종철 부부는 자식들을 민족학교에 보냈다. 박종철 친족의 대부분이 조총(在日本朝鮮人總連合會)에 관련되는 일을 하고 있어 일본학교에 입학시키는 선택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친인 성매는 자식들이 민족학교의 세계에만 빠져 버리지 않도록 지역의 어린이회 야외 센터나 도서관등의 활동에 자식들을 적극적으로 참가시켜 왔다. 딸 박경화는 이러한 어머니의 태도에 대해서 “어머니는 ‘우리는 특수하니까 이대로 있으면 이 세계에 매몰 되어 버려’라고 했고 또 ‘모처럼 태어나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세상을 더 잘 알고 싶고 딴 세계도 알고

싶다’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를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가르쳐 줬어요”라고 이해하고 있다.

일본 사회에 존재해 온 민족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가의 전후 세대가 취한 전략은 스스로는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이며 자식들에게는 높은 학력을 갖추게 해서 전문 기술 자격(의사 자격)으로 일본 사회에서 안정된 직업 생활과 경제적 기반을 획득 하게 하였던 것이다.

5-3 : 성장기 세대 · 정주 세대의 생애사

<성장기 · 정주 세대의 진로 선택>

지금까지 봐 온 것 같은 전후 세대의 부모의 희망을 성장기 · 정주 세대의 자식들은 어떻게 이해해 왔을까. 대부분은 비교적 솔직하게 부모의 가치관을 받아 들여 “안정된 직업”, “재일 코리안에게도 차별이 없는 직업”, “사회적 위신도가 높은 직업”, 즉 의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고가에서 최초로 의학부 진학을 완수한 강태철의 사정은 다르다. 그의 원래 희망은 의학부가 아니었다. 강태철은灘(나다)고등학교(8) 재학 중에 “조선사람으로 산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해 사회과학에 대해 강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으로부터의 통신 (『韓国からの通信』) ”(岩波新書)과 白戸三平의 만화 “카미伝”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고2때 이과인지 문과인지를 선택할 때 문과에 진학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크게 반대했었다. 문과 대학에 가도 조선인은 별로 장래를 개척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였다.

【강태철】 (나의 문과 진학 희망을 듣고 아버지는) “어떻게 먹고 살아 가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조선사람은 京都大 나와도 불고기 가게 하고 있다”라든가, “파칭코 가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잔뜩 하셨습니다. “장래 무슨 일이 있으면 가족을 먹여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따위 문과 대학 같은 건 졸업해도 장래는 없어!”라고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도 그는 세 네 번 부친과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의학부에만 들어가면 1, 2 년 휴학 해서 문과 대학에서 공부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타협안을 얻었다. 강태철 도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있고, 읽고 싶은 책도 읽을 수 있으면 돈을 버는

수단은 뭐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해, 의학부 진학을 결정했다고 한다. 결코 적극적인 선택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성적이 우수했던 강태철은 도쿄대학 이과Ⅲ류에 합격해 상경했다.

도쿄는 그에게 신천지였다. “조선인으로서 산다”라고 주위에 선언해, “재일 한국학생 동맹”이라고 하는 학생 조직의 민족 운동에 빠지게 된다. 4년간은 활동 일색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대학의 학업은 소홀히 되어 유급 하게 된다. 그러나, 4년간의 활동 종료 후, “허탈 상태에 빠진 것 같은” 형태가 되어 대학에도 가지 않는 나날을 보냈다.

【강태철】 정말로 황당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넘 길었어요. 85(년), 6, 7, 8... 4년동안, 책을 읽든가 혹은 매일 잔소(마작을 하는 곳)에 다니기도 했어요.

그 때는 부모의 설득에 저서 의학부에 진학한 것을 후회하거나 인생 그 자체에 고민해 괴로워하기도 한 것 같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어 가족에게 먹고 자는 곳도 알리지 않고 학원강사를 하면서 1년간 자신의 인생을 다시 생각했다. 그 결과, “대학으로 돌아가서 의학을 공부해 이상적인 의료를 해 보자”라고 결단했다. 복학 후 그 때까지 뒤쳐진 것을 따라잡기 위해 공부에 힘썼다. 그리고, 수업의 일환인 실습에서 소아과 교실의 조수를 만나 의기투합해 소아과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4년간의 공백을 극복해 11년 걸려 대학을 졸업하고 무사하게 국가 시험에도 합격했다. 그리고 대학 재학 중에 남동생을 골육종으로 잃은 영향도 있어 혈액·종양 분야에서 임상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는 도쿄대학의 소아과 조수로서 재직하면서 자신의 전문분야를 마칠 수 있도록 연구와 임상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박경철도 강태철과 같이 “재일 코리안이니까”라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서 의학부로 진로를 변경했다. 농학부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고등학교 담임 교사의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다.

【박경철】 생명공학(bio-technology)으로 맛있는 과일을 재배하겠다. 나도 기쁘고 세계 누구나 다 기뻐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넘, 단순하게 생각한 거 같아요. 고2나 고3 때 “교토대의 농학부에 가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니까 재일 코리안 학생들을 많이 진학시켜 온 담임 선생님은 “의학부나 공학부의 건축학과 좋지 않을까?”라고 하셨어요. “예~?”라는 느낌이었어요. 넘 놀랐어요. 그

말에 역시 충격을 받았어요. 제일인 것이 이러한 식으로 세상의 이러한 장벽으로 인해 진로 역시 제한되어 버린다는 것이.

박경철은 강태철만큼은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마취과 의사가 되어 2년을 마치는 무렵에 면담을 했을 때는, “저는 조금(의학부 진학을 관한 고교시절의 답임을)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도 역시. 이상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이 그런 말만 안 했으면 저는 자신의 길을 더 잘 걸었을 지도 몰라요”라고 하면서, 지금의 길이 결코 본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일에는 “환자를 고치는 일”과 “환자를 만족시키는 일”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 그 둘의 균형을 잡는 것이 의사로서 목표로 해야 할 모습이라고 했다. “(의사로서의 자신은) 수박의 붉은 부분과 흰 부분과 초록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어디를 먹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길(마취과의)을 선택한 이상, 이 길에서 삶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의사로서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현재는 마취과의 분야에서도 특히 통증 치료(pain clinic)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로서 도쿄의 병원에서 연구에 정진하고 있다.

<가족·친족으로부터의 영향·격려>

앞에서도 논했지만 일본의 의학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난관의 대학 입시를 돌파해야 한다. 고가의 경우, 부모들이 명확한 희망을 갖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환경(안정된 경제 기반, 대학 진학을 제시할 수 있는 부모 자신의 학력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 절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조건에 덧붙여, 고가의 가족·친족의 강한 결함도 정주 세대가 차례차례로 의학부 진학을 완수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 고가의 사람들은 잔치(축하일)나 제사 등으로 빈번히 모여 서로 만날 기회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강태철이 도쿄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의 아버지는 기뻐서 친족을 불고기 가게에 청해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은 당시 아직 어렸던 사람들(같은 정주 세대에 해당한다)에게는 인상적인 사건 이었던 것이다.

【춘매】 지금도 잘 생각나는 것은 제가 6살 때 오빠(강태철)는 18살이었어요. 그때 “오빠가 도쿄대학 합격했으니 지금 축하 갔다 온다. 너희들은 잘 자라.”라고 하는 (부모의) 말씀에 “아, 도쿄대학은 대단한 곳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와 같이 강태철의 도쿄대학 이III합격은 친족들의 목표가 되어 제사등에서 친족이 모이면 그 후로부터 대학을 목표로 하는 자식들에게 적극적으로 의학부 진학을 권했다고 한다. 또 먼저 의학부 진학을 완수한 사촌형제들로부터 의학부에 관한 정보를 받거나 공부를 배우거나 하는 등등, 친족 전체가 의사에의 길을 뜻하도록 격려해 왔다는 점이, 정주 세대의 생애사에서 나타난다.

【춘매】 (제사등에서 친족이 모인 장소에서) 5 학년 때에 (친족의 누군가가) “춘매는 의사가 되면 좋겠어”라고 말했어요. (중략) 고등학생이 되어서 고모와 만났을 때 “춘매도 고등학교구나. (진로) 어떻게 할거냐? 의학부도 좋지 않아?”라고 권했어요.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워 하고 있었을 때에) 때마침 박경철 오빠가 코베대학의 의학부에 다녀 근처에 있었기에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왔어요.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땐 언제나 “가르쳐줘”하고 묻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해서 그 영향도 많았다고 생각해요. “의학부에서는 뭐 배워?”라고 묻기도 했어요. “아무튼, 의학부 들어가서 좋아.”라든가, “(진로에) 해매고 있으면, 의학부 가면 되.”라는 어드바이스를 받았어요.

<의사 이외의 선택>

의학부 진학 이외의 선택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사촌이나 형제의 영향을 받아 대학은 가까이에 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경수는 고등학교까지 민족학교에 다니고, 클럽에 열중해서 공부를 소홀히 하는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 대학으로의 진학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에 다니는 누나·형, 그리고 또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대학은 재미있는 곳인 거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일본의 대학 진학을 결심했다고 말한다. 모친(성매)에 의하면 고3때의 학력은 “중 2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수험 공부를 했다고 한다. 성매는 웃으면서 당시를 돌이켜 본다.

성매】 경수가 대학 가겠다고 말한 후 아침 5 시쯤에 그 애의 방에서 소리가 들리기에 살그머니 들여다 보니 아니 글썄, 경수가 라디오 강좌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녀 놀라서 남편(박종철)에게 “여보, 저, 경수가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노력한 보람이 있어 교토의 사립대에 합격했다. 그리고 한 번 다른 대학에 편입한 후 대학원 석사과정을 두 학교에서 마치는 방법으로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한 진로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경수는 이하와 같이 말한다.

【경수】 (장래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생각한 결과 무엇인지 자격을 따서 스테이터스도 얻는 것이 제일 좋다고는 생각했었지만. 대학원에 가려고 생각해서, 재정학(코스에) 들어가서 재정학 공부하고 세무사가 될까 하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원에 가는 것과 경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 일석이조가 되기에 그렇게 하려고.

형이나 누나, 그리고 다른 친척들도 보면, 좁은 세계이지만 역시 몸을 치료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정말로 많이. 그렇지 않아도 돈의 사용법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의미에서의 의사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뭐, 이것이라면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이렇게 해서 사회에 나온 경수는 일하면서 CPA(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도 따고 지금은 토요타계 상사의 미국의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활약중이다.

은우도 민족학교(중학)로부터 공립 상업 고교, 関西学院대학(9) 상학부를 거쳐, 1997년에 A시 직원의 채용시험(행정직)에 합격했다. A시가 행정직의 국적 조항(10)을 철폐한 해의 첫 외국적합격자로서 화제를 모았다. 지금도 A시에 근무하고 있어 2007년 봄에 동포와 결혼했다고 들었다.

이러한 경수나 은우의 사례는 재일 코리안의 직업 선택에 여유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전후 세대에게는 재일 코리안으로서의 직업 선택에서의 장벽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취직 활동을 해도 “재일 코리안이니까”라는 이유로 취직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이러한 체험으로 “의사나 변호사,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이라고 하는 매우 한정된 장래상을 가지게 되어, 그것을 자식들에게 전해 주는 데에 연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주 세대는 부모가 전해 준 장래상을 일단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그것을 상대화해 다른 길을 어떻게든 개척하고자 하는 모습도 찾아낼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닫혀 있던(또는 닫혀 있다고 생각해 온) 직업에 재일 코리안이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모델을 다음 세대의 재일 코리안에게도 제시하게 될 것이며, 일본인(일본 사회)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6. 맺음말

<성장기 세대·정주 세대와 가족·친족>

여기까지 전후 세대의 자영업으로부터 성장기 세대·정주 세대가 전문직으로 상승 이동하는 프로세스와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요인을 고가 세대의 생애사로부터 제시해 왔다. 재일 코리안들은 차별이 없는 안정직이라고 하면 ‘단연 의사’라는 직업관을 갖고 있어 자식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하려고 가족·친족 전체가 총동원하여 지지·격려해 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사 등 친족이 모이는 장소가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온 것도 생애사로부터 읽어낼 수 있다. 그 중에는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고가의 성장기 세대·정주 세대의 상당수는 의사를 비롯한 전문직에 종사해, 각기 의사, 공무원, 통역, 그리고 상장기업의 봉급 생활자로서 다망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고가의 사람들이 빈번히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교토, 오사카, 고베(京阪神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비교적 간단하게 왕래 할 수 있는 한편, 자영업이었기에 바빠도 서로의 형편을 맞추기 쉬웠기 때문이다. 성장기 세대·정주 세대들의 조건은 다르다. 거주지도 일본 전국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미치고 있고, 일의 성격만 보더라도 자신의 형편을 좀처럼 일에 우선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그들은 제사=가족·친족 결합의 상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즉 고가의 성장기 세대·정주 세대의 사람들이 완수한 상승 이동은 가족·친족과의 관계를 강하게 하는지, 반대로 약하게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약간 언급하기로 하자.

성장기 세대·정주 세대의 사람들은 각각 생애사 속에서 제사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중지”한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다만 조상의 영혼을 모시는 유교적인 의미보다 가족·친족이 같이 모이는 장소로서 소중히 지켜 가야 한다고 하는 생각 주를 이루었다. 실제로 이들은 각각 다망한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되면 먼 곳으로부터도 제사에 출석하고 있다.

제사가 주최자 특히 어른들의 요리를 준비해야 하는 여성에게 대단한 부담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어 제사의 방식은 변화시켜 가도 괜찮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나도 고가의 제사에 몇 번이나 출석했지만 “요리의 준비가 많고 해서 제사는 힘들어요”라고 불평하는 전후 세대의 여성들에 대해서 젊은 정주 세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니깐 힘들지요. 요리는, 미역국이나 밥만

있으면 되요. 이것도 저것도 제대로 준비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계속 해가는 것이 중요하니까”라고 말하는 것을 몇 번이나 들었다. 제사의 일기도 꼭 기일(성해는 음력을 주장한다)이 아니어도 모두가 모이기 쉬운 기일에 가까운 주말에 실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등,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다.

【경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사에서 친척을 만나 “잘 있었어?”라고 하는 장소로서 지켜 갈까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는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하면 될 것이고. 시간이나 요리 같은 것도, 더 합리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와 같이 고가의 성장기 세대·정주 세대가 이룬 상승 이동은 결코 가족·친족의 분리를 가져오지 않았다. 현재 직업상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것에는 물론 본인의 노력도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까지 민족학교에 다닌 박경화는 일본의 대학 수험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 밤에는 오사카부립(大阪府立)고등학교의 定時制(11)에 재적하고 그 실적을 가지고 大学入学資格検定(12)을 받았다(합격 후는 정시제 고등학교를 퇴학). 그 후 1년간의 재수생을 거쳐 나라현립(奈良縣立) 의대에 합격했다. 재수생을 할 때, “누나 학원을 다닐 때 계속 공부만 했어요. 아마 이불 속에서 잔 적 없을 것이예요. 책상 위에서 선잠 잤을 뿐”(경수) 이렇게 분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노력을 지지한 것은 먼저 도쿄대학 의대 진학을 이루려고 한 강태철이 장래의 모델이 되어 목표가 된 것, 그리고 친족 전체가 자식들의 진로 달성을 응원한 것 등이다. 그들 자신도 가족·친족의 지지에 의하여 달성한 상승 이동의 의미를 이해해 친족 간의 상호부조나 결속을 소중히 해 가려고 생각한 것 같다.

다음의 태화의 말이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태화 통역으로서 일을 계속하는 한편, 2006년 봄부터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했다(13). 2007년 여름 서울에서 그녀와 재회했을 때 나는 “통역만으로도 충분한 수입이 있는데 왜 고생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가?”라고 물었다. 그 때의 태화의 대답이다.

【태화】 저도 왜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는지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타다오 삼촌(은우의 부친)이 많이 걱정되요. 리나(은우의

누나)가 신체 약하잖아요. 일도 할 수 없고. 삼촌도 언제까지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우에게 리나를 맡기는 것은 넘 불쌍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살펴 주자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촌들은 이젠, 제각기 일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각기 가족이 있어요. 저는 독신이고 평생 먹고 살 돈은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사로 돈이 모이면, 그 돈, 전부 리나에게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필자: 요즘 이렇게까지 사촌 걱정을 하는 사람은 드문 일 아니예요?) 왜냐하면, 저의 할머니는 매우 상냥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감싸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우리를 걱정해 주셨고, 모두가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을 바랬어요. 우리는 할머니의 손자이니까 할머니의 정신을 계승하고 곤란해 하는 친척이 있으면 최대한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금후의 과제>

고가의 합계 16명(재조사도 포함해서 방문 회수는 24회)의 세대간 생애사 조사가 종료하고 10년이 지났다.

당시 현역으로 일하고 있던 전후 세대는 거의 일선을 물러나(14),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성장기·정주 세대의 대부분은 결혼을 해 아이를 가지고 있다. 지금은 30대부터 40대까지가 한창 일할 때이다.

전후 세대와의 세대 교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성장기·정주 세대의 사람들이 제사 등의 주축자가 되어 가족·친족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들이 현재 생활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 가는지, 또한 변화한다고 하면 어떻게 변해가는지 등 흥미로운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재일 코리안이라도 차별이 없는 직업”으로서 의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실제로 “근무 상에서는 민족은 상관 없어요”, “실력 세계이니까 민족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라고 단언한다. 전문직에 종사한 결과는 민족을 현재화 시키면서도(본명으로 생활을 하는 등), 일본인과의 민족 관계를 묶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 가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업무상의 인간 관계가 중심이 되어 동포와의 교제가 가족·친족 이외에는 적어지고 있다는 점도 말해 준다. 유소년기에 자연히 몸에 밴 민족 문화가 기초가 되고 있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청년기에 의식적으로 형성된 민족 의식이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도 흥미로운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한창 아이를 기르고 있는 성장기·정주 세대가 차세대의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등, 새로운 세대간의 관련과 비교를 추적하는 것도 중요한 테마일 것이다.

이 10년간, 나는 고가의 사람들과 친교를 계속 해 왔다. 이 관계를 활용하여 한번 더 팔로우업(follow up) 인터뷰를 실시해 세대간에 계승되고 있는 것 또는 단절해 가는 것이 무엇가에 대해서 재차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

(註)

(1)재일 코리안의 호칭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재일 조선인, 재일 한국·조선인, 재일 한국인 등,한반도의 정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각자의 입장에 의해, 주장하는 호칭이 다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한반도 출신자 및 그 자손이라는 의미로 재일 코리안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선행 연구를 리뷰 할 경우에는, 그 연구 안에 사용된 호칭을 그대로 사용했다.

또 일상적으로는 “재일”이라고도 한다. 인터뷰에서는 당사자들이 빈번히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

(2)일본에서는 “생활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 용어를 고안 한 谷富夫 교수의 원어는 “세대간 생활사”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한국에서의 용어에 따라 “생애사”를 이용한다.

(3)재일 대한민국 민단이 보유하는 명부를 이용해 “20세 이상의 일본에 정주하고 있는 한국적의 남성”을 모집단으로서 1280명을 추출해, 방문 면접 조사법으로 실시된 조사. 1995년 2월 18일~1996년 10월 31일이 실시 기간이었다.

(4)일본의 국립대학. 도쿄대학과 같이 입학이 어려운 대학이며, 연구를 리드하는 대학의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엘리트 대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5)가명.이하 본고에 사용한 이름은 전부가 가명임.

(6)도쿄대학에서는 3 학년 때에 각 학부에 진학한다. 1-2 학년은 교양 과정으로, 문과 I 류, II 류, III 류, 이과 I 류, II 류, III 류로 분류되어 있다. 이과III 류에서 많은 학생이 의학부에 진학하므로, 의학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이과III 류 입학의 목표로 하는 것이 통상이다.

(7)사립 중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인해 고등학교까지의 6년간을 같은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 많은 사립학교는 대학 입시를 위한 커리큘럼을 6년 계획으로 짜므로, 대학 입시에는 유리하다고 생각되어 있다.

(8)고베시에 있는 사립 남자 중고교. 도쿄대학 등 일본의 유명 대학으로의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9)일본의 관서지방에 있는 유명 사립대학교. 미션 (mission) 계 대학

(10)1996년까지는 수험자격에 “일본국적보유자”라는 조건이 필요하게 되었다

(11)야간의 고등학교

(12)고등학교미졸업 등 어떠한 이유로 대학 입학 자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지를 인정하기 위해서 검정을 실시해, 합격자에게 대학 입학 자격을 주는 것이다. 지금은 “고교 졸업 정도 인정 시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되어 있다.

(13)서울에서의 사업은 성공하지 않아, 결국 2008년 3월에 그만두었다. 지금은 전과 같이 통역을 계속하고 있다.

(14)박종철만이 아직 현역으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참고문헌>

福岡安則・金明秀

『在日韓国人青年の生活と意識』（東京大学出版会, 1997년）

稲月正・山本かほり

『在日韓国・朝鮮人と階層構造』（八木正（編）『被差別世界と社会学』明石書店, 1996년）47-77 쪽

金明秀・稲月正

「在日韓国人の社会移動」(高坂健次(편)『階層社会から新しい市民社会へ』東京大学出版会, 2000년) 181-200 쪽

朴在一

『在日朝鮮人に関する綜合調査研究』(朝鮮文化研究所, 1957년)

谷富夫(편)『ライフヒストリーを学ぶ人のために』(世界思想社, 1996년)

谷富夫(편)『民族関係における結合と分離』(ミネルヴァ書房, 2002년)

山本かほり「高学歴・専門職で生きる」(谷富夫(편)『民族関係における結合と分離』(ミネルヴァ書房, 2002년) 280-378쪽

【X1】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사에서 친척을 만나 “잘 있었어?”라고 하는 장소로서 지켜 갈까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는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 하면 될 것이고. 시간이나 요리 같은 것도, 더 합리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와 같이 X가의 성장기 세대・정주 세대가 이룬 상승 이동은 결코 가족・친족의 분리를 가져오지 않았다. 현재 직업상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것에는 물론 본인의 노력도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까지 민족학교에 다닌X4는 일본의 대학 수험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 밤에는 大阪府立고등학교의 定時制(8)에 재적하고 그 실적을 가지고 大学入学資格検定(9)을 받았다(합격 후는 정시제 고등학교를 퇴학). 그후1년간의 재수생을 거쳐 奈良縣立 의대에 합격했다. 재수생 할 때, “누나 학원을 다닐 때 계속 공부만 했어요. 아마 이불 속에서 잔 적 없을 것이에요. 책상 위에서 선잠 잤을 뿐”(X1) 이렇게 분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노력을 지지한 것은 먼저 도쿄대학 의대 진학을 이루려고 한 X13이 신변의 모델이 되어 목표가 된 것, 그리고 친족 전체가 자식들의 진로 달성을 응원한 것 등이다. 그들 자신 가족・친족의 지지에 의하여 달성한 상승 이동의 의미를 이해해 친족 간의 상호부조나 결속을 소중히 해 가려고 생각한 것 같다.

다음의 X7의 말이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X7은 통역으로서 일을 계속하는 한편, 2006년 봄부터 서울에서 유리 식기의

수입업에도 착수하고 있다. 2007년 여름 서울에서 그녀와 재회했을 때 나는 “통역만으로도 충분한 수입이 있는데 왜 고생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가?”라고 물었다. 그 때의 X7의 대답이다.

【X7】저도 왜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는지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타다오 삼촌(X14의 부친)이 많이 걱정되요. 리나(X14의 언니)가 신체 약하잖아요. 일도 할 수 없고. 삼촌도 언제까지나 살수 있는 것이 아니고. X14에게 리나를 맡기는 것은 넘 불쌍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살펴 주자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사촌들은 이젠, 제각기 일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각기 가족이 있어요. 저는 독신이고 평생 먹고 살 돈은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사로 돈이 모이면, 그 돈, 전부 리나에게 돌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필자: 요즘 이까지 사촌 걱정을 하는 사람은 드문 것이 아니예요?) 왜냐하면, 저의 할머니는 매우 상냥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감싸는 사람 이었어요. 언제나 우리를 걱정해 주셨고, 모두가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을 바랬어요. 우리는 할머니의 손자이니까 할머니의 정신을 계승하고 곤란해 하는 친척이 있으면 최대한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금후의 과제>

X가의 합계 16명(재조사도 포함해서 방문 회수는 24회)의 세대간 생애사 조사가 종료하고 10년이 지났다.

당시 현역으로 일하고 있던 전후 세대는 거의 제일선을 물러나(X3만이 아직 현역으로 埼玉에서 단신부임중이다),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성장기·정주 세대의 대부분은 결혼을 해 아이를 가지고 있다. 지금은 30대부터 40대까지가 한창 일할 때이다.

전후 세대와의 세대 교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성장기·정주 세대의 사람들이 제사등의 주최자가 되어 가족·친족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들이 현재 생활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 가는지, 또한 변화한다고 하면 어떻게 변해가는지 등 흥미로운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재일 코리안이라도 차별이 없는 직업”으로서 의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그이들은 실제로 “근무 상에서는 민족 관계 없어요”, “실력 세계이니까 민족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라고 명언한다. 전문직에 종사한 것이 결과는 민족을 현재 시키면서도(본명으로 생활을 하는 등), 일본인과의 민족 관계를 묶는 하나의 계기로 되어 가는 것을

열볼 수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업무상의 인간 관계가 중심이 되어 동포와의 교제가 가족·친족 이외에는 적어지고 있다는 것도 말해 준다. 유소기에 자연히 몸에 밴 민족 문화가 기초로는 되고 있지만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청년기에 의식적으로 형성된 민족 의식이 어떻게 변용되고 있는지를 추구하는 것도 흥미로운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한창 아이를 기르고 있는 성장기·정주 세대가 차세대의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등, 새로운 세대간의 관련과 비교를 추구하는 것도 중요한 테마일 것이다.

이 10년간, 나는 X가의 사람들과 친교를 계속 해 왔다. 이 관계를 활용하여 한번 더 폴로업 인터뷰를 실시해 세대간에 계승되고 있는 것 또는 단절해 가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재차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다.

注

(1) 재일 코리안의 호칭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논의가 있다. 재일 조선인, 재일 한국·조선인, 재일 한국인 등,한반도의 정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각자의 입장에 의해, 주장하는 호칭이 다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논의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한반도 출신자 및 그 자손이라는 의미로 재일 코리안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선행 연구를 리뷰 할 경우에는, 그 연구 안에 사용된 호칭을 그대로 사용했다.

또 일상적으로는 “재일”이라고도 한다. 인터뷰에서는 당사자들이 빈번히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

(2) 일본에서는 “생활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 용어를 고안 한 谷富夫 교수의 원어는 “세대간 생활사”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한국에서의 용어에 따라 “생애사”를 이용한다.

(3) 재일 대한민국 민단이 보유하는 명부를 이용해 “20세 이상의 일본에 정주하고 있는 한국적의 남성”을 모집단으로서 1280명을 추출해, 방문 면접 조사법으로 실시된 조사. 1995년 2월 18일~1996년 10월 31일이 실시 기간이었다.

(4) 일본의 국립대학. 도쿄대학과 같은 난관 대학이며, 연구를 리드하는 대학의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엘리트 대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5) 도쿄대학에서는 3 학년 때에 각 학부에 진학한다. 1-2 학년은 교양 과정으로, 문과 1류, 2류, 3류, 이과 1류, 2류, 3류로 분류 되어 있다. 이과 3류에서 많은 학생이 의학부에 진학하므로, 의학부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이과 3류 입학 을 목표로 하는 것이 통상이다.

(6) 사립 중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인해 고등학교까지의 6년간을 같은 학교에서 보내게 된다. 많은 사립학교는 대학 입시를 위한 커리큘럼을 6년 계획으로 짜므로, 대학 입시에는 유리하다고 생각되어 있다.

(7) 코베시에 있는 사립 남자 중고교. 도쿄대학 등 일본의 유명 대학으로의 진학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야간의 고등학교

(9) 고등학교미졸업 등 어떠한 이유로 대학 입학 자격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 대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정하기 위해서 검정을 실시해, 합격자에게 대학 입학 자격을 주는 것이다. 지금은 “고교 졸업 정도 인정 시험”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福岡安則・金明秀

『在日韓国人青年の生活と意識』 (東京大学出版会, 1997년)

稲月正・山本かほり

『在日韓国・朝鮮人と階層構造』 (八木正 (편) 『被差別世界と社会学』 明石書店, 1996년) 47-77 쪽

金明秀・稲月正

「在日韓国人の社会移動」 (高坂健次 (편) 『階層社会から新しい市民社会へ』 東京大学出版会, 2000년) 181-200 쪽

朴在一

『在日朝鮮人に関する綜合調査研究』 (朝鮮文化研究所, 1957년)

谷富夫 (편) 『ライフヒストリーを学ぶ人のために』 (世界思想社, 1996년)

谷富夫 (편) 『民族関係における結合と分離』 (ミネルヴァ書房, 2002년)

山本かほり「高学歴・専門職で生きる」（谷富夫（編）『民族関係
における結合と分離』（ミネルヴァ書房，2002年）280-378쪽